



경기 하강 시그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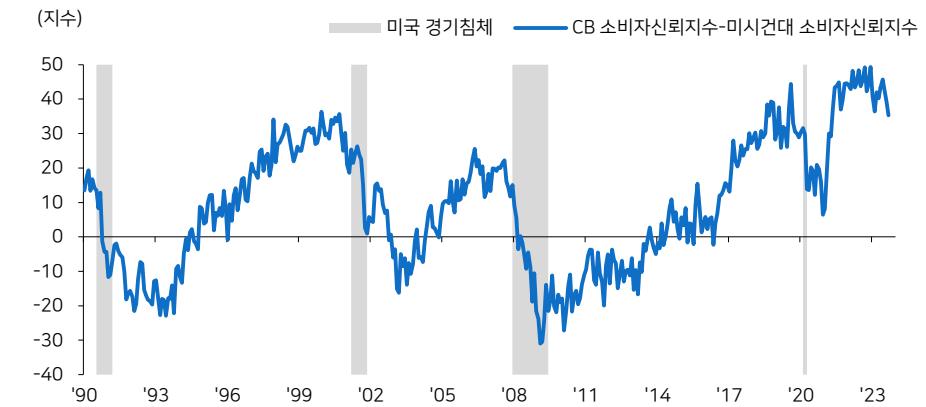
미국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대비 5.7pt 하락한 103pt 기록, 7월 고점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에 전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며, 정치적 상황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 특히 가구 소득이 5만달러 이상인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 뚜렷

향후 전망 지수는 8월 83.3에서 9월 73.7로 급락했는데, 보도자료에서는 경험적으로 전망지수가 80을 하회하는 것은 1년 이내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수준이라고 함.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졌는데, 2024년 상반기 예상되는 짧고 얕은 경기 위축과 일치한다고 언급

Market Watch의 Mark Hulbert는 대표적인 미국 소비자 서베이인 컨퍼런스보드 지수와 미시건대 지수의 격차 확대는 후행적으로 경기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 CB는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반영하는 반면, 미시건대는 직접적인 개인 상황에 비중을 두고 있음. 개인 재무상황에 대해서는 하향하면서도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하다가 그 격차가 좁혀지며 경기 하강 나타난다는 것. 두 지수의 격차는 작년말 50까지 확대되었다가 9월 35pt까지 축소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전일 신규주택매매도 부진하는 등 경기 하강 시그널은 비교적 명확. 9월 FOMC 이전엔 경기둔화에 금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최근엔 이례적인 금리 수준에 대한 불안감으로 bad is good 경로가 작동하지 않음. 경기는 시차를 두고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당장은 눈앞에 직면한 셋다운 등을 경계하는 상황으로 풀이

그림1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차이



자료: Michigan University, Conference Board, NBER,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주체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